



미 증시, 경제지표 호조, 연준위원 발언 소화하며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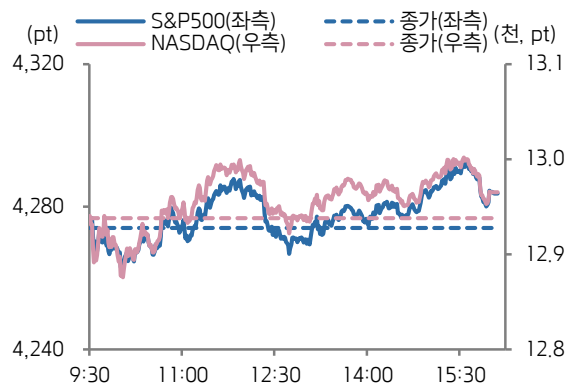
18 일(목) 미국 증시는 실업수당청구건수 및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호조에도, 일부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달러 강세, 주택지표 부진 등이 지수 상단을 제한하며 소폭 상승 마감 (다우 +0.06%, S&P500 +0.23%, 나스닥 +0.21%, 러셀 2000 +0.68%).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9 월 FOMC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로 되돌리기까지 18 개월이 걸릴 것이고 경로가 고르지 않을 것',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지 않았으며 연말까지 정책 금리를 3.75~4%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매파적 스탠스를 보임.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금 침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이어지며 향후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부각.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25 만명 증가(예상 26.5 만명, 전주 25.2 만명)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소폭 감소. 8 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는 6.2(예상치 -5.0, 전월치 -12.3) 기록하며 3 개월만에 (+) 전환. 신규 수주 지수 -24.8 -5.1, 신규 출하 14.8 24.8, 가격 52.2 43.6 등 개선. 한편 7 월 기준주택판매는 전월대비 -5.9%(예상치 -5.1%, 전월치 -5.5%) 하락하며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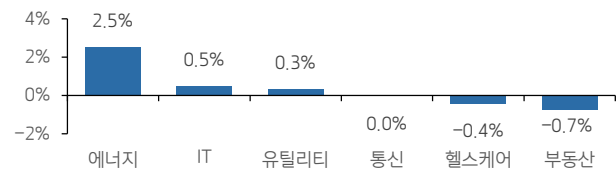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2.5%), IT(+0.5%), 유틸리티(+0.3%) 업종은 강세, 부동산(-0.7%), 헬스케어(-0.4%), 통신(0%) 업종은 약세. 국제유가가 이를 연속 상승하며 90 달러대 회복한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 강세, 시스코(5.8%)의 실적 호조 및 긍정적인 가이드스 발표에 힘입어 IT 업종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28%) 반등. 헬스케어 업종은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3 거래일 연속 약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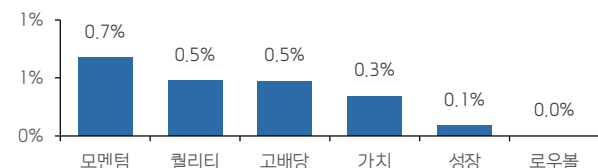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283.74	+0.23%	USD/KRW	1,320.55	+0.78%
NASDAQ	12,965.34	+0.21%	달러 지수	107.49	+0.86%
다우	33,999.04	+0.06%	EUR/USD	1.01	+0.02%
VIX	19.56	-1.71%	USD/CNH	6.80	+0.01%
러셀 2000	2,000.73	+0.68%	USD/JPY	135.88	-0.01%
필라. 반도체	3,037.84	+2.28%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035.34	+0.8%	국고채 3년	3.130	+4.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25	+4.5bp
Eurostoxx50	3,777.38	+0.57%	미국 국채 2년	3.197	-8.7bp
MSCI 전세계 지수	655.39	+0.05%	미국 국채 10년	2.882	-1.5bp
MSCI DM 지수	2,826.41	+0.1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15.59	+0.14%	WTI	90.5	+2.71%
MSCI 한국 ETF	60.04	-1.04%	금	1771.2	-0.3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6.9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가치주와 성장주간의 단기적인 로테이션 출현 가능성 2. 기술적인 저항선(코스피 120 일선, 20 주선) 돌파에 대한 부담이 대형주들 투심에 미치는 영향 3. 원/달러 환율 1,320 원 재돌파가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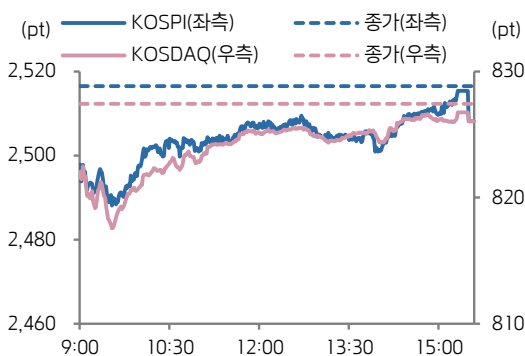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시장에서는 “7 월 고용 예상치 상회 & 7 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하회”를 이유로 강도높은 금리인상을 시행하면서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 또한 지난해 여름 이후 시장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9 월 75bp 인상 선호 발언은 이 같은 의견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 다만 그의 발언 후에도 9 월 FOMC 50bp 인상 확률(60.5%, 75bp 39.5%)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아직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은 빅스텝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면서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장의 발언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 연말 기준금리도 3.5%와 3.75%를 놓고 컨센서스가 수시로 뒤바뀌고 있는 만큼, 최소 9 월 FOMC 전까지는 매크로 의존도가 높은 장세가 이어질 것을 대비할 필요.

한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양호하게 진행됐던 2 분기 실적시즌, 밸류에이션 매력 등으로 주요국 증시는 최근 1 개월 동안 단기 안도락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금주 들어서는 차익실현 욕구가 점증함에 따라 숨고르기 장세가 출현하는 등 전반적인 증시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8 일 미국 증시에서 배드뱅크스 비온드(-19.6%, 시간외 -30%대), 게임스톱(-6.4%, 시간외 -10%대) 등 주요 밈주식들이 동반 급락하고 있다는 점은 증시의 단기 과열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요국 증시에서 최근 주가 상승세가 좋았던 고베타 혹은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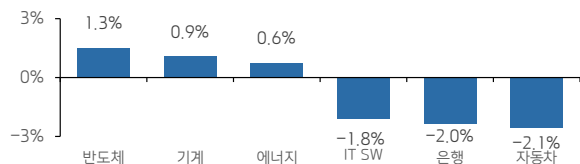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조정, 중국 실물 경기 둔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피해 우려 등으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으나, 반도체주 강세 속 외국인 장종 매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해 채로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2%) 금일에는 마이크론(+2.5%), 엔비디아(+2.4%)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반등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나, 원/달러 환율 1,320 원대 재돌파에 따른 외국인 수급 부담 등으로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유가 등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최근 인플레이션 피해주, 성장주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환경도 향후에도 유효할 전망이지만,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2.5%) 업종 등 가치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주요 시클리컬 업종 및 종목군들로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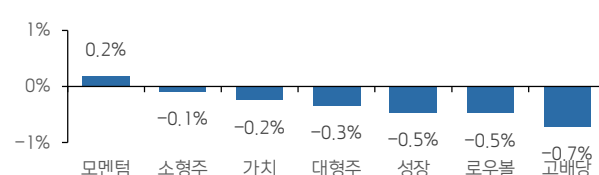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